

노동조합 공개 질의에 대한 후보자 소견서

후보자: 윤 대 희

1.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 총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재원 확보 및 기타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우선 총장 직속의 연세발전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전문 fund raiser를 고용하여 전문화된 기부금 모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체적 구현 방안으로, (1) 기금을 모금한 기관에 matching을 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연세의 전 구성원이 기금 모금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2) 연세 보유 자산의 개발 사업을 위한 연세 Eagle Fund를 조성하여 개발이익을 학교에 기부하도록 하며, (3) 언어교육연구원, 사회교육원, 출판문화원 등 수익기관을 더욱 활성화하여 각 분야 별 연세브랜드에 맞는 지식자산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며, (4) 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거액기부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5) 동문의 기부참여율을 현 4%에서 8%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임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범용기금(운영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 단과대학 별로 후배사랑장학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각 대학 별 모금 실적을 구성원이 볼 수 있고 모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2) 1천명 참여목표로 등록금 한번 더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년 50억원을 확보하고, (3) 장학금 수혜자의 10년후 장학금 돌려주기운동을 통하여 년 10억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임 4년간 5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를 위한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년 2,500억원 규모의 국가 R&D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재임 4년간 총 1조 3,500억원의 운영, 장학, 연구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임 총장은 국내 최고의 교직원 처우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그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귀하께서 차기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실시할 직원 처우 개선과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최고 급여 수준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직원들이 단순관리 업무보다는 사업의 기획 및 수행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업무체제를 개선하고, 단순 업무는 별도의 직군으로 직제 편성하는 등의 체제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1)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분야별 전문적 소양개발을 하고, (2) 해외교육기관 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우수교육기관의 교육제도를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의 개교와 발 맞추어 직원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3) 신입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체제개선을 통하여 행정직원이 학교행정의 실질적 책임자로 일할 수 있고, 교수와 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시스템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축하며, 이에 의하여 공정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대외부총장과 총무처장이 직원과의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갖고 학교의 비전과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등 소통의 구조를 갖게 되면 노사관계가 원만해 질 것으로 믿습니다.

3. 언론에 보도된 KAIST 서남표 총장의 대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이며,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에게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AIST는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운영되는 대학이며, 연세대학교는 자립하여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KAIST의 대학개혁방안은 연세대학교에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에게서 구성원 간에 신뢰하고 신명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수의 인사를 숫자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학문단위 별 특성을 고려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각 학문단위 별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며 본부는 대학과 학과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스로 개혁하는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날로그 시대에 맞추어진 행정체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학의 기본단위인 학과의 행정을 전문화하고 행정직원들이 기획과 사업수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수는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 즉 디지털이 가진 정확성과 세밀함, 아날로그가 가진 여유와 따뜻함을 모두 취해 우리 연세만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